

건강을 지키는 현장

학교주변 교통 정리 나선

자양 3동 교통할아버지

“봉사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진 요즘,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어난다고 있다. 여러가지 교통대책이나 질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는 제대로 자리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교주변의 거리질서는 유난히 복잡하기만 해,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는것이 왠지 불안한 맘을 들게 한다.

“교통할아버지”의 봉사활동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더불어서 할아버지들의 여가선용과, 정기적인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손자같은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교통할아버지”들의 활동을 취재해 봤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교통 할아버지의 바쁜 손놀림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의 바쁜 걸음으로 성동구 자양3동 신양사거리(신양국교앞)는 매우 분주해보인다.

그 사이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깃발을 움직이며, 아이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왔다갔다 하는 교통 할아버지의 손놀림도 행인들의 걸음 만큼이나 분주하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 건널목을 불과 50m 가까이 두기도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 그것도 학교 앞 건널목 근처에서, 할아버지들의 힘겨운 노력을 무색하게 해놓고도 용기 있는 사람인양 떳떳하게….

『저런 사람을 볼때마다 기운이 빠져. 뭐가 그렇게 급한지, 윈, 저러다 다치면 자기만 손해야.』라며, 혀를 차는 한 교통할아버지의 말에 괜히 내가 부끄러워진다.

• 아이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른다.

교통할아버지들의 일과는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운동도 되기 때문에 교통할아버지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박창열 할아버지는 말씀하신다.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교통정리를 하지. 그럴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늦어도 7시까지 는 나와야 해.』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다는 박창열 교통할아버지(성동구 자양3동 489)의 이야기다.

1시간 30분. 젊은 사람도 그시간 동안 길에서, 그것도 깃발을 들고서 있으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일텐데도 할아버지의 얼굴은 힘든 기색이 별로 없다.

『힘들지. 처음엔 다리도 좀 아팠고... 하지만 이젠 숙달이 되어서

건강을 지키는 현장

괜찮아. 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또 좀 힘들면 어때. 내 손자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라고 박할아버지는 말한다.

• 규칙적 생활로 건강에도 도움된다.

박창열 할아버지는 또, 『그래도 정말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뿌듯함 같은 것 말야. 그리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운동도 되거든, 재미도 있고.』라고 말한다.

일이 아니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인정에서 일상적인 일과를 보냈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 여가선용과 봉사 활동의 뿌듯함

'90년부터 시작된 이 교통할아버지의 봉사활동은 현재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회의 어떤 역할로부터 소외되어가고 있는 할아버지들의 무료한 시간을 지역봉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 시에서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었는데, 할아버지들의 참여의욕도 높았고 또 책임감도 강해 주민들의 호응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의 각 동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호씨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 청소년 선도위한 골목 할아버지 활동도

할아버지의 활동은 교통정리에 국한되어있지는 않다. 현재 '교통할아버지 활동'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이 '골목할아버지 활동'이다.

『주로 청소년선도, 유해·퇴폐행위 정화, 자연보호 거리질서 운동을 비롯해 지역자치 활동을 전개하지요. 현재 성동구의 5개동에서 20분의 할아버지가 참가하고 계십니다.』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의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매일 약간의 봉사료를 받게 된다. 물론 많은 액수의 돈은 아니다. 각 구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된 교통 할아버지 활동

건강을 지키는 현장

청에서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이 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는 매우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 봉사활동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기쁨 위해 보람있는 일

한편 성동구청에서는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일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노인 공동 작업장이다. 현재 응봉동, 행당1동의 일부 APT지역에서 운영하는 이 작업장은 큰힘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노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용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할머니들의 모임으로, 대한노인회 산하에 “할머니 봉사단” 활동도 있다. 성동구에서는 10명이 참가하고 있다는 이 활동은, 주로 전통 장 담그는 법 가르쳐주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생활을 현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노인들에게도 할 일이 필요하다. 편안히 쉬는 것만이 반드시 노인의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편안히 집안에 모셔두는 것만이 반드시 공경하는 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의 활동은 노인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나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은)